4위 제주Utd 선두 추격 불씨 당긴다

오늘 K리그1 2022 20R 상무 상대 승수쌓기 총력
퍼펙트 해트트릭 주민규·데뷔골 김범수에 기대

선두권 경쟁에서 한 발 물러선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가 김천상무를 상대로 승수쌓기를 통해 다시 추격의 불씨를 당긴다.

제주는 5일 오후 7시 김천종합운동장에서 하나원큐 K리그1 2022 20라운드 원정경기를 치른다. 올 시즌 득점 1위(14골)를 달리던 무고사(인천)가 일본 빗셀 고베로 이적하며, 그 뒤를 추격하던 주민규(12골)와 조규성(11골)의 맞대결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제주는 리그 4위, 김천은 10위까지 주저 앉은 상태다. 양팀 모두 승리가 간절한 상황에 놓였다.

원정팀 제주는 최근 3경기 연속 승리와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다. 대구와 강원 원정에서 연패를 당한 뒤 홈에서 치러진 FC서울과 경기에선 2-0으로 앞서가다가 동점을 허용하며 승점 1에 만족해야 했다. 1무 2패가 3승으로 바뀌었다면 선두 울산현대를 턱밑까지 추격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가 사라진 셈이다. 다행히 포항이 울산을 잡으면서 선두와의 격차는 더 벌어지지 않았다. 2위권 팀들에겐 다시 기회가 주어졌다.

제주는 지난 시즌 득점왕 주민규와 K리그 데뷔골을 터트린 'K리그 제이미 바디' 김범수의 발끝을 기대하고 있다. 원정경기이지만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특히 주민규는 지난 5월 8일 홈경기를 떠올리고 있다. 김천과의 경기에서 올 시즌 K리그1 통틀어 첫 해트트릭이자, 머리, 오른발, 왼발로 모두 득점한 '퍼펙트 해트트릭'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홈팀 김천은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홈에서 강원에 1-0으로 승리한 뒤 2개월 가량 승리한 기록이 없다. 9경기를 치르는 동안 김천은 4무 5패로 승점은 4에 그쳤다. 11위 수원삼성과 같은 승점인데 다득점에 앞서 10위를 기록하고 있다. 강등권 위기에 빠져든 상황이다.

더구나 조규성은 시즌 중인 오는 9월 7일 전역한다. 조규성뿐만 아니라 득점력을 갖춘 유인수와 국가대표 수비수 정승현 등 14명이 같은 날 전역하게 된다. 게다가 말년 휴가가 시작되는 8월 초부터 14명의 선수를 활용하기 어렵게 돼 7월 한 달 예정된 5경기에 총력을 쏟아 부어야 한다. 전북현대와의 첫 단추는 잘못 꿰기에, 이어지는 제주 전에서 배수진을 칠 것으로 보인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최지만 시즌 7호포 최지만이 4일(한국시간) 로저스 센터에서 열린 '2022 메이저리그' 토론토와의 원정경기서 5회 바뀐 투수 트렌트 손톤의 2구째를 잡아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포(시즌 7호)를 쏘아 올렸다. 최지만은 이날 홈런 포함 3안타를 몰아치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탬파베이는 이번 5연전에서 2패 후 3연승을 내달리며 위닝시리즈 기록했다. 연합뉴스

생활체육 동호회 리그 운영
서귀포시체육회 11월까지 2종목

서귀포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인 '2022 생활체육동호회리그 운영사업'에 선정돼 지난 6월 28일부터 11월 말까지 2종목(그라운드골프·사진, 파크골프)의 생활체육동호회리그를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비(기금) 37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매월 각 종목별 2라운드로 진행되며 총 35라운드(그라운드골프 10, 파크골프 15)가 진행된다.

김태문 회장은 "국가 체육공모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지속적인 체육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윤기자

SSG 에이스 김광현(왼쪽)과 KIA 양현종(오른쪽)이 KBO 올스타에 선정되면서 좌완 에이스 맞대결을 기대케 하고 있다. 연합뉴스

좌완 에이스 양현종-김광현 '빅뱅'

2022 신한은행 SOL KBO 올스타 '베스타 12' 발표
양현종 최다득표… 2013년 봉중근 이후 역대 2번째

올해 프로야구 올스타전에서 양현종(KIA)과 김광현(SSG) 두 좌완 에이스의 맞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KBO는 2022 신한은행 SOL KBO 올스타 '베스타 12'를 최종 선정, 4일 발표했다.

최다 득표 주인공은 예상대로 양현종이었다. 양현종은 전체 팬 투표에서 유효표 264만8888표 중 가장 많은 141만3722표를 받았다. 올스타 팬 투표 중 투수 포지션에서 최다 득표 선수가 나온 것은 2013년 웨스턴 봉중근(LG) 이후 역대 2번째다.

김광현은 드림 올스타 선발투수 부문에서 선두를 유지하며 개인 5번째 베스트12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2022 올스타전은 KBO 리그 대표 좌완 에이스 2명의 맞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한 이대호(롯데)는 지명타자 부문에서 선두에 오르며 개인 통산 10번째 올스타 베스트12에 선정됐다.

이번 올스타 선정은 팬 투표(70%)와 선수단 투표(30%)를 합산한 점수로 선정됐다.

드림 올스타에서는 1루수 부문에서 박병호(KT)가 오재일(삼성)을, 3루수는 최정(SSG)이 이원석(삼성)을 제쳤다. 유격수는 박성한(SSG)이 이재현(삼성)을 제치고 최종 선정됐다. 나눔 올스타 중간투수 부문에서는 정우영(LG)이 전상현(KIA)을 앞질렀고, 유격수는 오지환(LG)이 박찬호(KIA)에 역전했다.

구단별로 살펴보면 드림 올스타에서는 삼성 6명, SSG 4명, KT, 롯데가 각각 1명씩 배출했고, 나눔 올스타에서는 KIA 9명, LG 2명, 키움 1명이 선정됐다. 조상윤기자

전국지적장애인축구대회 3년 만에 열린다

제12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기… 역대 최다팀 참가

8~11일 도내 3개 구장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기 전국지적장애인축구대회가 3년 만에 다시 개최된다.

제12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기 전국지적장애인축구대회가 대한장애인축구협회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축구협회(회장 고영호) 공동주최로 오는 8~11일 제주시 사라봉 축구장 등 3곳에서 열린다.

대한민국 지적장애인 축구발전과 출전 팀 간 화합의 장 마련은 물론 스포츠 정신을 고취해 도내 장애인 스포츠 산업 육성 및 전국 장애인 축구의 저변확대와 경기력 향상으로 지적장애 축구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시키는데 일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11인제(일반부) 10개팀, 5인제(풋살) 12개팀 총 22개팀 등 역대 가장 많은 팀이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에서 참가선수 250명, 임원 80명 등이 나서 지적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축구뿐만 아니라 장애인 체육발전과 비장애인 모두가 하나가 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영호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2년간 개최를 하지 못해 장애인 축구 선수들이 기량을 선보일 대회가 없었는데 3년여 만에 다시 개최를 하게 된 만큼 지적장애인 선수들이 마음껏 뛰어 놀고 축구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윤기자

취 축 CONGRATULATIONS 임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김 경 학

구좌읍연합청년회 역대회장 협의회
고성인 양은범 김성익 김경학 김정균 부두정
윤종필 허영근 부지성 문준호 정종호 강봉우

취 축 CONGRATULATIONS 임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김 경 학 의원

2003년 구좌읍 청년회장 모임 일동
구좌읍연합청년회 회장 김경학 김녕리 강경수 덕천리 양영환 행원리 주창범
한동리 오영일 평대리 김홍관 송당리 고영신 상도리 부두정 하도리 이영배 종달리 채찬식